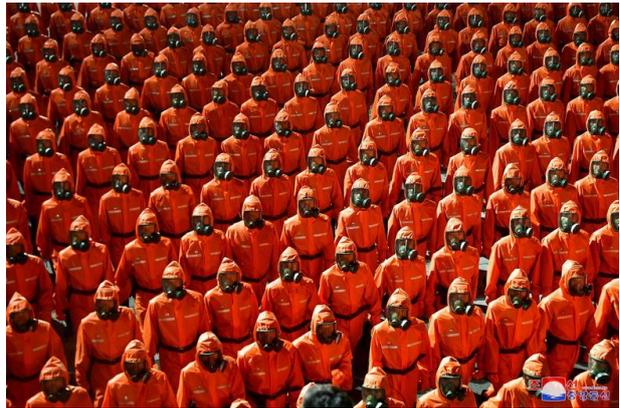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미국 차기 연준 의장을 기다리는 5 대 과제
 - ◇ (초점)-개시증거금에 발목잡힌 NDF 거래 .. 앞으로 괜찮나
 - ◇ (초점)-코스피-원화 악순환 데자뷰?...환시수급 읽기 분주
 - ◇ (시장진단)-현물·크레딧 손절 매물 폭주.. "채권시장 심리 완전히 무너진 듯"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일 0시를 기해 평양에서 개최한 열병식 도중 주황색 방호복을 입은 병력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선중앙통신/로이터)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9월10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69.1	-1.0%	-7.1%	+6.5%	유로	1.1814	-0.6%	-3.3%	+8.9%
100엔 대비	1,064.4	-1.2%	-1.2%	+1.1%	엔	109.93	-0.2%	-6.1%	+5.2%
유로 대비	1,382.5	-0.8%	-4.1%	-2.3%	위안	6.4560	0.0%	1.1%	+6.7%
위안 대비	181.58	-1.5%	-8.4%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607.72	-2.2%	13.1%	+7.2%
코스피	3,125.76	-2.4%	8.8%	+30.8%	나스닥	15,115.49	-1.6%	17.3%	+43.6%
코스닥	1,037.91	-1.5%	7.2%	+44.6%	S&P500	4,458.58	-1.7%	18.7%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67.43	-0.5%	0.8%	+19.8%
국고채 3Y	1.501%	6.4bp	52.5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750%	5.4bp	41.5bp	-14.5bp	미국채 2Y	0.215%	0.7bp	9.4bp	-144.0bp
국고채 10Y	2.006%	6.3bp	29.3bp	+3.0bp	미국채 10Y	1.343%	1.7bp	43.1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9.72	0.6%	43.7%	-20.5%	한국 5Y	17.7bp	-0.1bp	-4.3bp	+0.1bp
금(현물)	1,787.34	-2.1%	-5.8%	+25.0%	일본 5Y	17.1bp	-0.5bp	2.1bp	-4.5bp
TR상품지수	2,940.53	-0.9%	9.7%	+7.8%	중국 5Y	33.1bp	0.2bp	5.1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9월 13일(월)>

- 금감원,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관세청, 9월 1-10일 수출입 동향
- 한은, 코로나 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을 재추정(BOK 이슈노트)(12:00)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14:00)

<14일(화)>

- 한은, 8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한은, 7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 한은, 8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 한은, 8.26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15일(수)>

- 기재부, 관계장관회의(07:30) 및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8:00)
- 통계청, 8월 고용동향(08:00)
- 기재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10:00)
-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 한은,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12:00)

<16일(목)>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7:30), 1차관 브리핑(13:30)
- 금융위/금감원, 제 10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12:00)
- 금감원,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
- 한은,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12:00)
- 한은,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12:00)

<17일(금)>

- 기재부, 부총리 관계장관회의(07:30)
- 기재부, 9월 최근 경제동향(10:00)
- 한은, 2021년 추석 전 화폐공급 실적(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9월 13일(월)>

- 일본 8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일본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08:50)

<14일(화)>

- 미국 8월 연방예산 (03:00)
- 일본 7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미국 8월 NFIB 기업낙관지수 (19:00)
- 미국 8월 CPI (21:30)

<15일(수)>

- 일본 9월 로이더단칸 제조업·서비스업 지수 (08:00)
- 일본 7월 기계류주문 (08:50)
- 중국 8월 주택가격 (10:30)
- 중국 1-8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 (11:00)
- 중국 8월 산업생산·소매판매 (11:00)
- 유로존 7월 산업생산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9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1:30)
- 미국 8월 수출입 물가 (21:30)
- 미국 8월 산업생산 (22:15)

<16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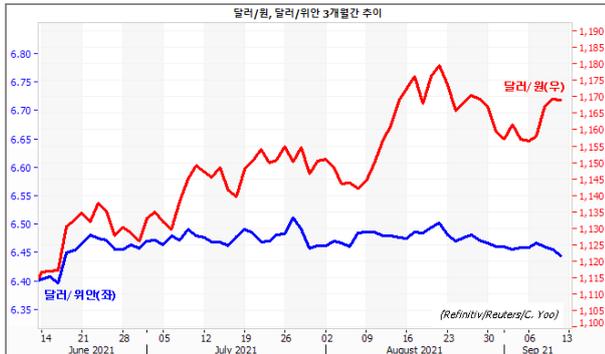
- 일본 8월 수출입 (08:5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9월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1:30)
- 미국 8월 소매판매 (21:30)
- 미국 7월 기업재고 (23:00)

<17일(금)>

- 유로존 7월 경상수지 (17:00)
-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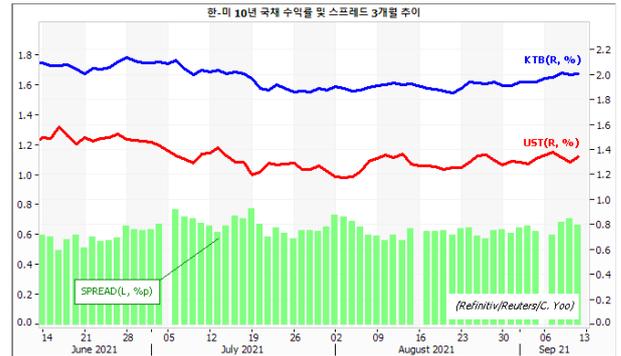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제 금융시장 분위기를 살피면서도 주로 수급 상황에 민감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55-1185 원이다.
- 경기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장 대응이 한층 어려워졌다. 전반적인 방향성뿐만 아니라 자산시장별로 그때그때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 이런 가운데 달러/원은 그간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상승 변동성에 다시 취약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풀리지 않는 외환 수급 구도라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체감상으로는 수요 측 강도가 매번 강하게 느껴지는 듯하다.
- 또한, 플랫폼 기업 규제 논란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 공세가 다시 전개되다 보니 달러 매수 심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은 더 보수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과 더불어 추석 연휴 전 시장 기대 수준의 네고 매물 유입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 달러/원 환율이 1170 원대로 올라 시장 참가자들의 레벨 경계감도 크지만, 사실상 원화 강세 기대 심리는 이미 꺾인 만큼 적극적으로 환율 흐름을 돌려세울 시장 내 에너지는 크지 않다. 결국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수급이 상단을 확인시켜줘야 하는 상황이다.
-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 회의를 한 주 앞두고 나올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결과도 변수다. 이 결과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9월 들어 채권시장의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고 있다. 8월 말까지 외국인 매수에 기댄 롱 장이 펼쳐졌다면 9월에는 그야말로 손절 장이다.
- 분위기 전환의 근간에는 통화정책 기대 전망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 8월 금통위 회의 전만 해도 2022년이 돼야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기준금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는데, 최근 들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 일단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확고해졌고, 내년 초 추가 인상은 부동산 가격에 달렸다는 분위기다.
- 당장 내년 말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 우리 역시 한두 차례 추가로 쫓아가면서 이번 사이클의 최종 수준이 1.5~1.75%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고 3년 기준 1.5% 마지노선이 무너진 이유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선 시장이 성급한 느낌도 없지 않다.
- 일단 14일에 발표되는 8월 금통위 회의 의사록을 통해 금통위원들 각각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물가 지표 역시 관건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10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해 2010년 11월 자료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14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초점)-차기 연준 의장을 기다리는 5대 과제

9월 08일 (로이터)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재지명할지 여부는 연준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적 민주당원들은 연준이 고용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기후 위험을 방지하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경제에서 좀 더 광범위한 역할을 맡기를 원하고 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연준이 통화정책에 집중하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금융시장과 감독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

다음은 향후 4년간 연준 의장이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들이다.

◆ 정책 정상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 부근으로 인하하고 수조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매입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연준 정책 결정권자들은 올해 말 자산매입 프로그램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8월 채택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연준은 경제가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며 이 수준을 완만하게 넘어설 때까지 금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 연준 위원들은 현재 2%를 넘어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으로 확인되리라 믿고 있지만, 물가 상승세가 더 지속된다면 차기 의장은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전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

8월 기준으로 미국 취업자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약 530만명 적은 상태다.

◆ 감시자 역할

강한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연준이 새로운 프레임워크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더 오래 유지한다면, 금융 규제를 강화해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움직임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한다.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데이비드 월콕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내 생각에 금융 규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의제이며, 특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 환경에서 금융 리스크 억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연준을 이끌든 금융 안정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채시장과 머니마켓 거래 방식과 관련한 구조적 약점은 지난 3월 팬데믹 관련 봉쇄조치 여파로 금융시장이 거의 붕괴되면서 드러난 바 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 역시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 디지털 화폐

연준이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결정했는지 여부도 주요 사안이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차기 연준 의장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 주제와 관련한 토론문을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발행 지지자들은 잘 설계된 디지털 화폐를 통해 거래 비용을 낮추고 혜택을 받지 못한 그룹들의 은행 시스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가게와 기업들이 보통 당좌예금 계좌를 없애고 연준과 바로 거래를 한다면 은행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마존과 같은 민간 기업들처럼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만약 디지털 화폐가 널리 채택된다면 이는 지불 시스템을 해체하고 연준의 금리 통제 능력을 위협하며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다트머스대학교의 앤드류 레빈 경제학 교수는 "연준은 이 사안을 신속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후 위험

차기 연준 의장은 또한 대형 산불, 초강력 허리케인 등 기후 변화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뤄야 할 것이다.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이사 모두 이상기후 현상이나 정부의 탄소 배출 제한 명령 등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은행들이 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연준의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준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연준은 작년 개별 은행의 기후 관련 리스크와 시스템 전반적인 리스크에 각각 초점을 맞추는 두 개의 내부 패널을 구성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중앙은행의 권고안을 개발하는 '녹색금융 네트워크(NGFS)'에도 가입했다.

새로운 입법 없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후 변화에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차기 연준 의장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인증 및 성 불평등

연준 관리들은 그간 인증 및 성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의견을 밝혀 왔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연준이 계획과 달리 임무를 변경하고 있다며 이를 '미션 크리프(mission creep)'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많은 좌파 성향 정치인들은 불평등과 관련한 연준의 움직임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며 부자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줄리아 코로나도 매크로 폴리시퍼스펙티브 대표는 "연준이 현시대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관

련해 일종의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노동시장 성과와 부의 재분배 관련한 불평등 및 불균형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되든 소기업 대출 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책 도구를 조정하며 이러한 격차를 일부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점)-개시증거금에 발목잡힌 NDF 거래..앞으로
관찰나**

서울, 9월 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9월부터 적용된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개시 증거금 교환 제도로 국내 은행들이 달러/원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최대한 꺼리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개시 증거금 교환 제도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증거금을 사전 교환하는 제도로, 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등은 제외된다.

이달부터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기관에 개시 증거금 제도가 적용되다 보니 대부분 국내 은행들의 NDF 관련 거래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 시행부터 '빠걱'

2017년부터 이미 예고됐던 국내 은행의 개시 증거금 교환 제도가 이번 달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을 전후해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은행을 '배드 네임'으로 지정하는 등 시장 내부 사정은 원활하지 않다.

국내의 경우 개시 증거금 보관·관리 역할을 위탁결제원이 맡는데 증거금으로 위탁한 채권 이자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이 때문에 국내 은행이 일부 외국계 은행과의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은행 관계자는 "몇몇 외국계 기관이 국내 은행들에 대해 배드 네임을 지정했다. 첫날보다는 그나마 시장 분위기가 차분해지긴 했지만 이전보다 배드

네임이 많아졌고 그렇다 보니 실제 거래하는 데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B 은행 관계자는 "이전부터 예고된 제도이긴 하지만 결국 개시 증거금 제도 준비가 국내 은행들의 경우 잘 되지 않았고, 이에 외국계 은행들과의 라인 문제가 생긴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 급한 불 끈다 해도 문제는 거래 비용

교환해야 할 개시 증거금은 면제 한도(스레시홀드) 650 억원 이하인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국내 은행들은 NDF, ND Swap 등 관련 거래를 최대한 자제할 채 이후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C 은행 관계자는 "스팟 뿐만 아니라 스왑, 자금 등이다 같이 영향받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적으로 거래 하자는 방침"이라면서 "지금은 시장도 레인지 장이고 물량도 줄었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장 끝난 이후 업체 물량을 처리해야 한다면 다소 불편을 겪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시 증거금은 총액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 지급할 개시 증거금을 산출해 상계 없이 교환하고, 담보 재사용도 금지돼 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증거금 부담도 함께 늘어나 결국 거래 비용 증가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개시 증거금 교환 계약 과정은 기관별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면제 한도, 담보 종류와 보관 등 여러 측면이 고려되는데, 특히 담보가 원화인지 달러인지도 주된 관건이다.

D 은행 관계자는 "제도 정착도 잘 안 됐고, 담보,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NDF 관련 거래를 안 하려 한다"면서 "이전에는 고객 물량을 자연스럽게 커버했는데 이제는 비용이 산출되다 보니 라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NDF 관련 거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커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픽싱 관련 물량이 줄면서 현물환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 "향후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개시 증거금 제도 시행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개시 증거금 제도는 변동 증거금 제도에 비해 향후 금융회사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증거금이나 담보를 취합해 운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시장 불안 시기에 증거금 증가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점)-코스피-원화 약순환 데자뷰?..환시 수급 위기 분주

서울, 9월 10일 (로이터) 박예나 · 이지훈 기자 - 한동안 잠잠했던 원화가 이번주 약세 변동성에 시달렸다.

지난달 중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매와 이에 따른 대규모 자금 유출로 단숨에 1180 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증시 진정과 함께 하향 안정되는 듯 했지만, 이번주 외인 주식 매도 공세에 발맞춰 다시 상승 시동을 걸었다.

현재(오후 12시 42분) 주간 달러지수 상승률은 0.5%, 원화 환율은 0.1%인데 반해 원화 절하율은 약 1%로 상대적인 약세가 두드러졌다.

8월 경험했던 외인 주도 증시 불안과 원화 약세 약순환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국내외 중앙은행들의 잇따른 긴축 기조 선회, 중국 빅테크 규제에 이은 국내 플랫폼 기업 규제 논란이 외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를 자극했다.

8일과 9일 양일간 외인들은 국내 대표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와 네이버 주식을 약 9천억원 팔아치웠고, 카카오뱅크도 2300억원 순매도했다. 현재까지 주간 외인 순매도 규모는 1.2조원에 이른다.

▲ 8월 외인 투매와 다르다?

외인들의 국내 빅테크 업종에 대한 매도 공격이 거세지만 국내 주식시장 내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난 반도체 투매 때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9일 종가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 합산 규모는 123조원 수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계 대비 1/4 수준에 그친다. 또한 기업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추가 조정 여파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노무라, JP모간 등 해외 기관들은 시장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추가적인 조정에는 저가 매수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8월 외국인 반도체 투매가 1주일 이후 안정을 찾은 점을 볼 때 인터넷 업종 매도도 장기화 가능성은 작다"면서 "당시 외인 주식 매도와 원화 약세 악순환 고리가 다시 나타날 만큼의 파급력도 아니"라고 말했다.

▲ 걸리지 않는 외환수급 긴장감

외환시장에서도 주식 역송금 수요 압력이 지난달처럼 압도적이지 않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환수급을 둘러싼 긴장감과 이에 따른 원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으로 추정되는 해외주식 순투자 규모는 약 120억달러로, 월평균 약 17억달러 수준이다. 해외주식 이외 다른 해외자산 투자까지 고려하면 달러 수요는 더 커진다.

일각에서는 이번주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 관련 달러 매수세를 추정하기도 했다. 무역수지가 10억달러대로 축소돼 여유로운 달러 사정을 가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건조한 해외투자 관련 수요가 유입되고, 이런 가운데 외인 주식 매도가 더해지면 환율 상승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어느덧 패턴화되고 있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반도체, 게임에 이어 플랫폼 주식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가면서 국내 주요 주식을 팔아치우는 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시그널이 더해지면서 시장내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단한 달러 수요는 이미 상수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기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라면서 "만약 다음주 중까지 환율이 박스권 하단으로 복귀 시도가 없으면 추석 연휴를 전후해 환율이 전고점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고 덧붙였다.

(시장진단)-현물-크레딧 손절 매물 '폭주'..채권시장 심리 완전히 무너진 듯"

서울, 9월 10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채권시장에 손절성 매물이 폭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전날 장후반부터 시작된 단기물 매도세가 가속화되면서 완전한 손절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이다.

10일 오전 10시 21분 현재 3년 국채선물 9월물은 전날보다 12틱 하락한 110.06, 10년 선물은 21틱 내린 126.86에 거래되고 있다. 뉴욕장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지면서 국내 채권시장도 강세 출발했지만 분위기는 금방 돌아섰다.

전날 장 후반부터 금리 수준을 불문하고 쏟아진 단기물 매도세가 이날도 시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고채, 통안채를 가리지 않고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며 크레딧물은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정책조정 사이클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흔들리면서 국내기관들이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전까지만 해도 2022년이 돼야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기준금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는데, 최근 들어 정상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운용역들이 늘고 있다.

8월 금통위 회의 직전 국채선물 순매수를 크게 늘린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포지션에 대한 우려도 매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채권시장은 8월 금통위 회의 직후에도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에 힘입어 이자율스왑(IRS)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다. 9월 들어 시장 심리가 급격히 매도로 돌면서 현물이 IRS를 쫓아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증권사 채권딜러는 "시장참가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며 "크레딧물 관련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상황인데 스왑도 계속 약하다 보니 기델데가 없어서 일단 포지션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증권사 채권운용팀장은 "어제 장 막판에 손절성으로 급하게 단기물을 처리하는 곳들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며 "만기 1.5년 이하 현물이 한 방향으로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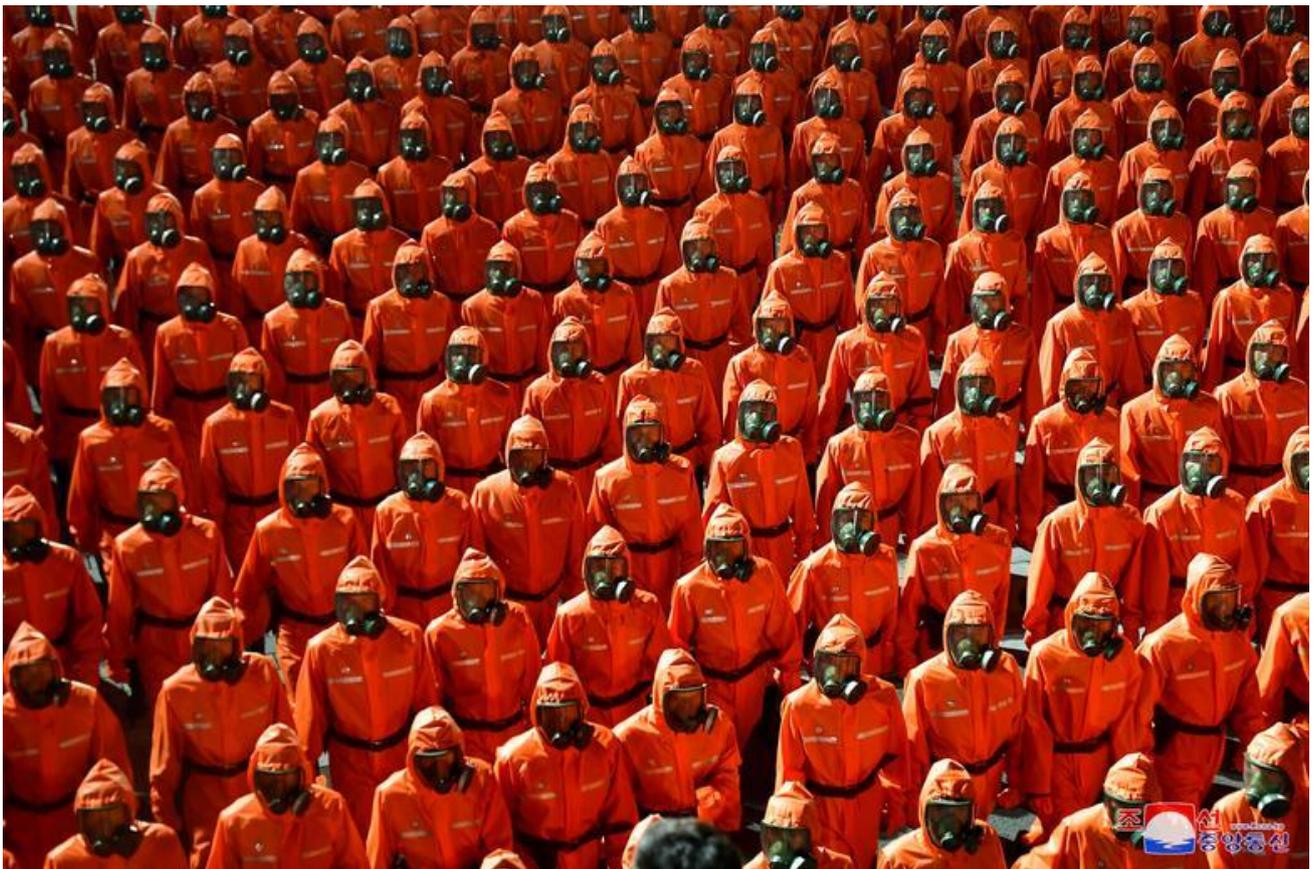
그는 "지금도 계절적으로 단기물이 안 좋은 시기라 금리 레벨만 보고 접근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크레딧이 더 안 좋다"고 말했다.

C 외국계은행 트레이딩헤드는 "외국인과 개인이 물려 있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이슈에 은행채 펀딩까지 가세했다"며 "그동안에는 3년물 1.5%가 말이 안되는 레벨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말이 되는 레벨이 됐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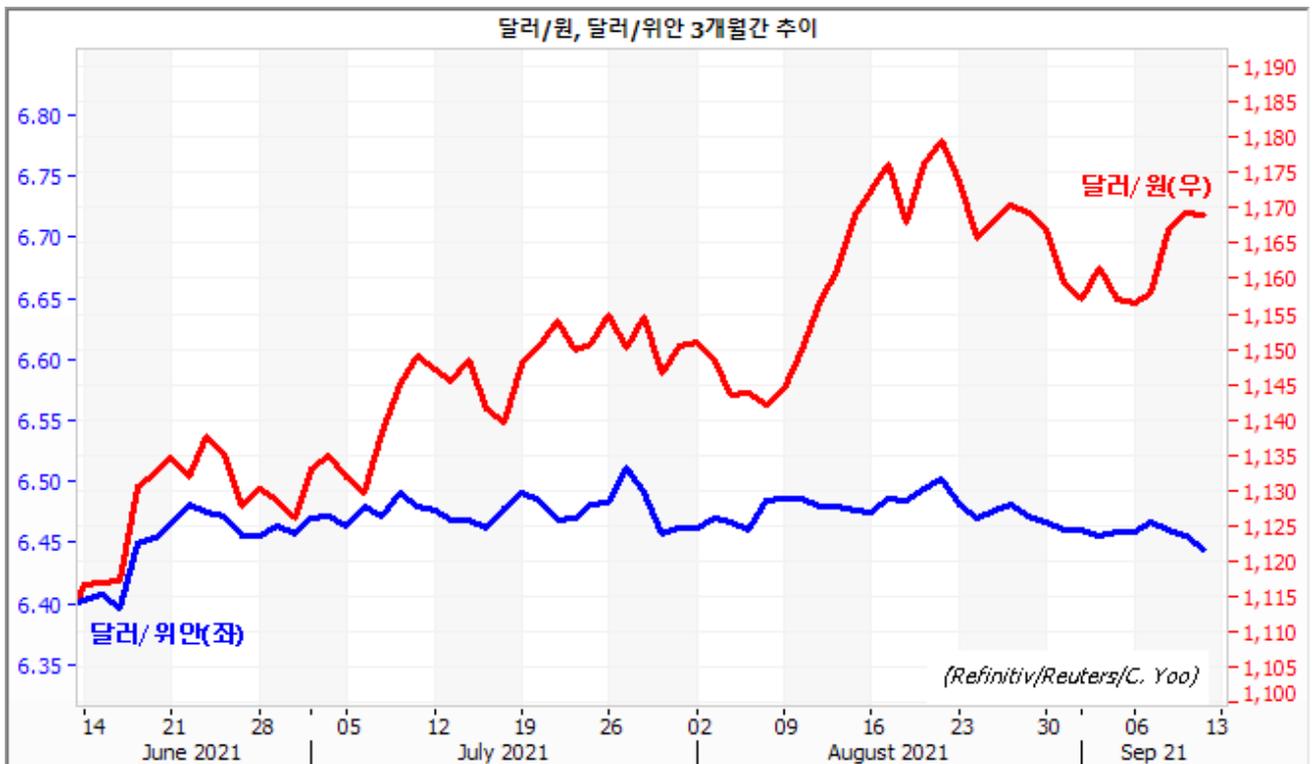
시장참가자들이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금리 하락장에 너무 익숙해져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관성대로 대응하다 보니 타격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D 은행 스왑딜러는 "일부 증권사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도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그동안에는 시장이 크게 밀리면 눈감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이겼는데 이번에도 관성대로 대응하다가 뭔가 꼬인 느낌"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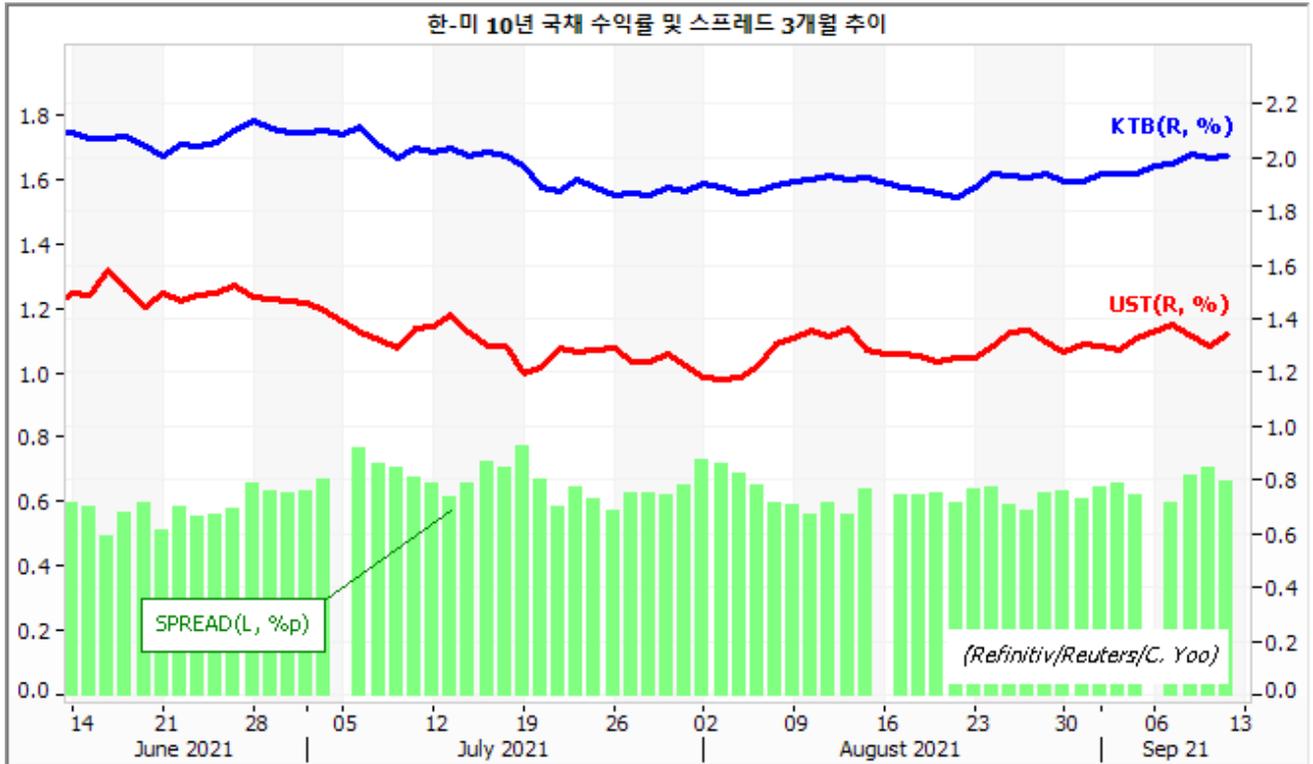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